

“禪은 종교 넘어선 실천 철학”

선학연구원 2차 덕승선학 학술회의 열려

“생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종호 스님 ◇심재홍 교수 ◇이은운 원장

21세기 초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선(禪)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 학술회의에서 “선은 그 본체가 이미 불교라는 종교에 국한하는 테두리를 넘어선 철학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정신적 대안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선의 생활화·대중화·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바이문(美 시몬스 칼리지) 명예교수, 종호(동국대 교수) 스님, 심재홍(서울대) 교수, 이은운(한국불교선학연구원) 원장 등 수십 년간 선을 수행하고 연구한 학

자들이 모인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제2차 덕승선학 학술회의’에서다.

7일 수석사 황하루에서 ‘21세기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 학술회의에서 “선(禪)을 주제로 열린 이 학술회의는, 한국 선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경허(1846~1912)·만공(1388~1463) 스님의 깨달음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실천적 방법을 논의한 자리였다.

그 동안 뉴 밀레니엄 시대에선 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시대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학술회의

는 바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선(禪)을 탐구한 셈이다.

‘만공의 선 세계와 미래문명의 비전’을 발표한 이은운 원장은 “선의 원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명해 새롭게 부상하는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선의 깨달음은 바로 ‘불법의 육화(肉化)’로, 그 본체가 이미 불교라는 종교에 국한하는 테두리를 넘어선 사상체계로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결코 의도라고 비판하거나 백안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로농구선수 처음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시카고 불스팀의 훈련 방법이 ‘불법의 육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는 이 원장은 “필책 감독의 훈련의 근간을 이룬 개인공 스님의 ‘무심사도(無心是道)’이며 선의 사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문 명예교수는 ‘뉴 밀레니엄의 문명 패러다임과 선’에서 “선불교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 사상을 이제 생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 명예교수는 “21세기에는 전(前) 세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절실할 필요인데, 이를 위해 선불교는 모든 생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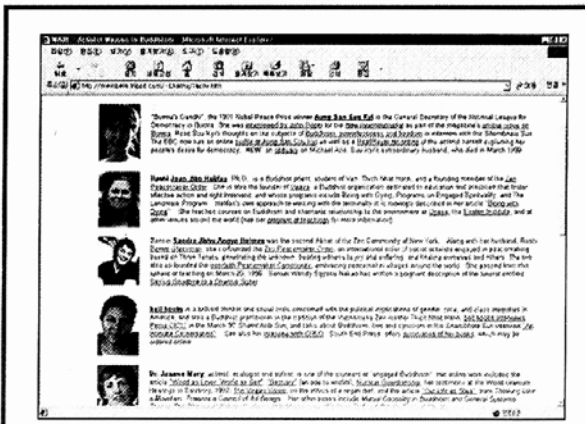
함몰로 보는 대중적 패러다임이 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 ‘한국선과 21세기 문화’를 각각 발표한 종호스님과 심재홍 교수는 “법을 전하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필요하지만 매사 스승 중심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세기에는 맹목적 추종보다는 비판적 심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열불·주력·간경 등이 삼매의 한 수단으로써 간화선과 내한히 갈 수 있다는 점을 소상히 논의해야 하고, 또 선불교도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학술회의에서 종호 스님은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한종광(성균관대 강사) 씨는 ‘경허의 선사상과 한국선의 진로’를 각각 발표했다. 또 현각(동국대 교수) 스님, 목경배·권기중(동국대) 교수, 강건기(전북대) 교수, 허우성(경희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여성운동

여성불자 지위와 역할 ‘재조명’

여성불자들이 개설한 사이트 ‘부다피아’가 개설한 ‘부처님 탄생(사기) 이야기’라는 국제여성불교단체를 결성했다. 케마(Khema)란 안경과 평온을 뜻하는 발리어나다. 이외에도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을 소개하고,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여성불자 줄리안 밀톤이 지난해 초 개설한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있는 사이트다.

여성불자 캠페인 ‘관심’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불자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상공간의 사이트 평가기관인 달마링(DeLamarling)에서 이 캠페인의 우수성을 인정해 파란색 리본 모양의 달마링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유명한 여성불자’에는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도 압축된 텍스트 파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다운로드(가져오기) 가능하다. 이 중에는 80년대 미국의 서점가를 감탄했던 할리 디 실비아씨의 <세상에 남긴 발자국>을 비롯해 부르스타인의 <파라미스>, 칸다 시리 스님의 <글없는 사랑>, 헤리스의 <불교를 배우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명상과 회생> 등 40여권이 소개되어 있다.

‘여성불자 캠페인’에서는 학술·문화계의 여성불자와 상좌부·금강·선불교 등의 여성불자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불교의 꽃을 피우게 한 아야 케마 스님은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

케마 스님은 87년 세계비구니

대회를 개최해 당시까지 가장 적었던 각각의 승단을 놀라게 했다. 케마 스님은 이 대회를 계기로 ‘부처님의 딸들(사기) 이야기’라는 국제여성불교단체를 결성했다. 케마(Khema)란 안경과 평온을 뜻하는 발리어나다. 이외에도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을 소개하고,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 속의 여성’은 담마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과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된 인물 평전도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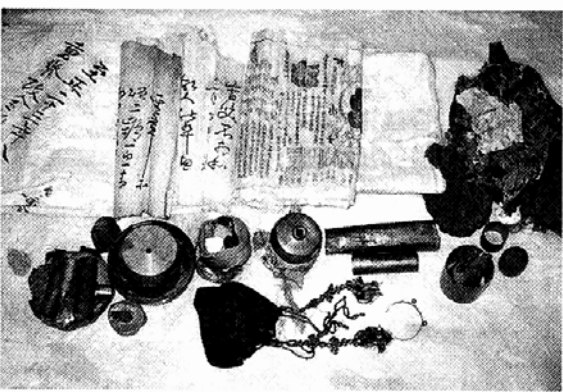
여성제자들 생애 소개

‘여성불자 수계식’에서는 법어와 발리어나를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베트 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명화에 나타난 여성성을 조명하고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에카타티를 비롯해 쿠루클라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타카는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 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 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 <고독한 도반> 등 여성불자와 관련한 20여권의 서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구니로서의 삶’ ‘티베트여성 보고서’ 등 각종 연구서들도 소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members.tripod.com/~lhamo/



◇지자체 3월 서울지방검찰청이 문화재 도굴·매매업자 손수석(64·재판중)씨에게 압수한 복장유물을, 현재까지 소재 사찰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국의 불상 가운데 20% 정도에만 복장물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장이 달려도 쉬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의 불상에만 복장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복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장 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중후회나 본·말사지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복장 조사’ 자체를 싫어하는 스님들이 많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지난해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장물 도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복장 조사”에 대한 가안을 세우기도 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스님들의 경우, 복장물을 성물(聖物)로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금과 같은 보수와 문화재 지정에 위한 절차 외에는 복장을 열지 않는 게 사찰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창균(문화재전문위원·불교공예) 씨는 “불상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천왕상과 나한상의 복장유물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며 “복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강원도-경기도 군사보호지역 불교유적·유물 77건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모두 77건의 불교유적·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가 지난 91년부터 10년간 추진한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학술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한 유적·유물은 종류별로 보면 사지 55건, 불상 10건, 탑·비 11건 등 모두 77건이며, 이는 전체 유적·유물 수와 비교해 96%에 이른다. 이중 용미리 석불입상(보물 93호·경기도 파주군 광탄면)과 계성리석등(보물 496호·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을 비롯해 한계사지(강원도기림읍 50호), 위라리사지(강원도영월군 화제 30호), 금학산마애불·삼동리3층석탑 및 석불좌상(강원도문화재자료) 등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주요 유적·유물

이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실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적의 존재를 짐작하던 곳이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연화리사지’를 확인한 것이 서해 도서지역의 불교문화를 밝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태 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은 “이 조사를 계기로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교유적·유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셈”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 불교문화에 대한 합동 조사의 발판도 닦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학술조사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단신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불교 유물과 옛 스님들의 유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근역성보관(楹城聖寶館)이 11일 문을 연다. 근역성보관에는 불교역사관 미술관 만공기념관 등이 마련됐으며 문화재 600여점이 전시된다. 수덕사 측은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97년 건물을 완공하고 3년여 동안

불교 유물 수집 등 전시준비를 해왔다.

개인소장 문화재 감정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반인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일시는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이며, 하절기(3월~10월)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동절기(11월~2월)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외외 유물과 신분증, 유물 1점당 사진(3x5) 1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02)398-5000

복장물 도난 증가 “복장 터진다” 실태조사 불가피

여러 사찰에서 부처님 복장물이 도난당하자, 문화재 전문가들이 “전국의 부처님 복장물을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복장물 모두가 비지정 문화재인데다, 도난당한 해당 사찰에서도 복장에 어떤 유물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불교 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99년 한해 동안 도굴범에 털린 복장물은 경북 환성사 삼존불상을 비롯해 50여 구에 이른다. 특히 백서 발간 이후 출현 불화나 불상의 매개가 불가능해지면서, 도난 복장 유물은 더욱 음성적 방법으로

숨어들게 되고 영연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성옥(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씨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복장물 대장은 고사하고, 어느 불상에 어떠한 복장물이 들어있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라며 “복장 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전모(신도회장) 씨 등에게 압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과 <백지금니변상도>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282호·경북 영주 흑석사)에 있었던 국보급 복장물이다.

오종욱 기자

구세구난·법계상징물... 육 환 장

고려불화원본 육환장

자연원형 범상용 주상자

연화좌대 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팔방이 광의하게 조각된 육환장.

상용과 오묘되며, 연꽃모양이 중심을 이룬 육환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육환장, 일본 대천미술관 소장.

연꽃모양과 관세음보살의 약방, 여의모주 등이 조각된 육환장.

나무의 공간 우담말화상상

우주불 우리넨다 송깃잔

자루가 안배지는 종말치

사원전통 손공예 3 氣發韓 백두대간 茶床展

수부랑삼작

일시 : 단기 4333년 4월 12일(수) ~ 4월 18일(화)
 장소 : 경인미술관 유리전시실(서울 인사동)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연구원
 후원 : 4.8봉축위원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연구원